



12

가선대부병마절도사사명기

嘉善大夫兵馬節度使司命旗

District Commander's Banner

조선 후기

공단 貢緞 운문단 雲紋緞

가로 89cm 세로 290cm

강화전쟁박물관 소장

재현품 Replica

어재연 魚在淵 장군의 사명기를 재현한 것이다.

어재연은 1823년(순조 23) 2월 출생하여

1841년(헌종 7) 무과에 급제, 공충도병마절도사가 되고,

1847년에 통정대부로 승급하였다.

1866년 병인양요 때 병사를 이끌고 광성진을 훌륭히

수비하였다. 이러한 경험으로 1871년 6월 1일 시작된

신미양요에서 어재연은 6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광성보로 급파되어 미군과 항전하다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13

대원군 칠언시

大院君 七言詩

Poem of Lee, Ha-eung

Written by Kim, Seong-geun

1871년

종이에 먹

가로 24cm 세로 116cm

개인소장

서막연진천하회 西舶煙塵天下晦.

동방일월만년명 東方日月萬年明

서양 배의 연기와 먼지로 천하가 어둡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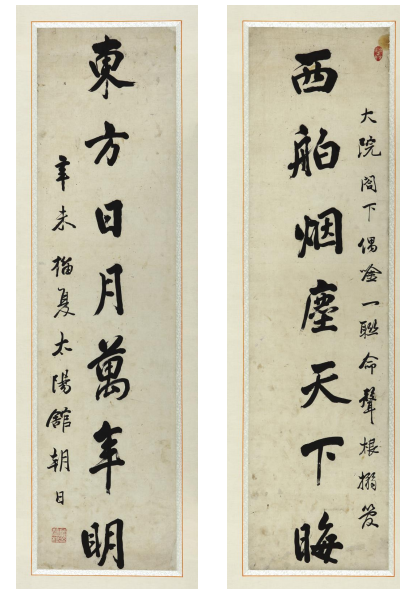
동방의 해와 달은 만년토록 밝으리

서예가 김성근(1835~1918)이 쓴다.

조선의 군사복식

신미양요 辛未洋擾

처절한 전투의 기억



신미양요는 1871년(고종 8) 6월 1일에 발생한 조선과 미국 간의 군사충돌이 일어난 사건이다. 미국 함대가 제너럴셔먼호 사건의 책임과 통상교섭을 명분으로 강화해협을 올라와 탐침을 시도하여 교전이 일어났다. 미군은 6월 10일 초진진, 6월 11일 덕진진을 점거하였다. 두 나라는 광성보에서 치열한 교전을 벌였고 조선의 어재연을 비롯한 수비병력 대다수가 사망했다. 미군은 전쟁의 승리로 20일간 통상을 요구하며 강화도에 주둔했으나 조선의 완강한 쇄국정책으로 아무런 협상을 못하고 철수하였다.

신미양요는 조선의 입장에서는 결사항전으로 이양선을 몰아낸 사건으로 인식되었다. 이를 계기로 대원군은 척화비를 세우고 1876년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때까지 쇄국정책을 고수하였다.



14

면갑 綿甲

Cotton Armor

19세기(1866~1870년)

면

앞길이 80cm 뒷길이 76cm 품 64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등록문화재 제459호

국내에 현존하는 유일한 면갑으로 무명 30겹의 배갑背甲 형태로 제작되었다.

투구, 요대, 엄심掩心이 소실되어 갑의甲衣만 남겨진 상태이다.

1916년(大正 5년) 조선총독부 박물관이 조선주차군朝鮮駐紮軍으로부터 일괄 인수한 조선 전통 무기와

갑옷 품목 중 하나였다. 뒷길에는 무가 달려있으며 오른쪽 어깨에서 연봉매듭과 고리로 여몄다.





전투에서 장수와 보호, 회복을 기원하는 오악진형도 무늬가 먹으로 인문되었다.

면제갑주 綿製甲冑 재현품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에 소장되어있는 면제갑주 일부를 실측 조사하여 재현하였다. 조사는 2018년 2월 MMA의 무기 담당 학예사 Donard J. LaRocca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으며 한국전통문화대학 초빙교수 겸 침선전문가 안인실, 경운박물관 부관장 박경자, 서울대학교박물관 이민정 객원연구원이 실측 조사와 제작에 참여하였다.

면제갑옷 유물의 제작 시기는 해외에 전리품으로 넘어간 시기를 고려해볼 때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사이로 추정된다.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소장 면제갑주는 갑의와 요대, 투구가 일체를 이룬다. 구성적인 면에서는 무명 30겹을 겹친 국내 소장 면갑과 동일하나 왼쪽 어깨에서 끈으로 여웠고 목둘레가 약간 각지게 파여있다.



15

면갑 綿甲

Cotton Armor
19세기
면
앞길이 82cm 등길이 78.5cm 폭 66cm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소장
재현품 Replica
오약전형도 무늬가 찍혀있다.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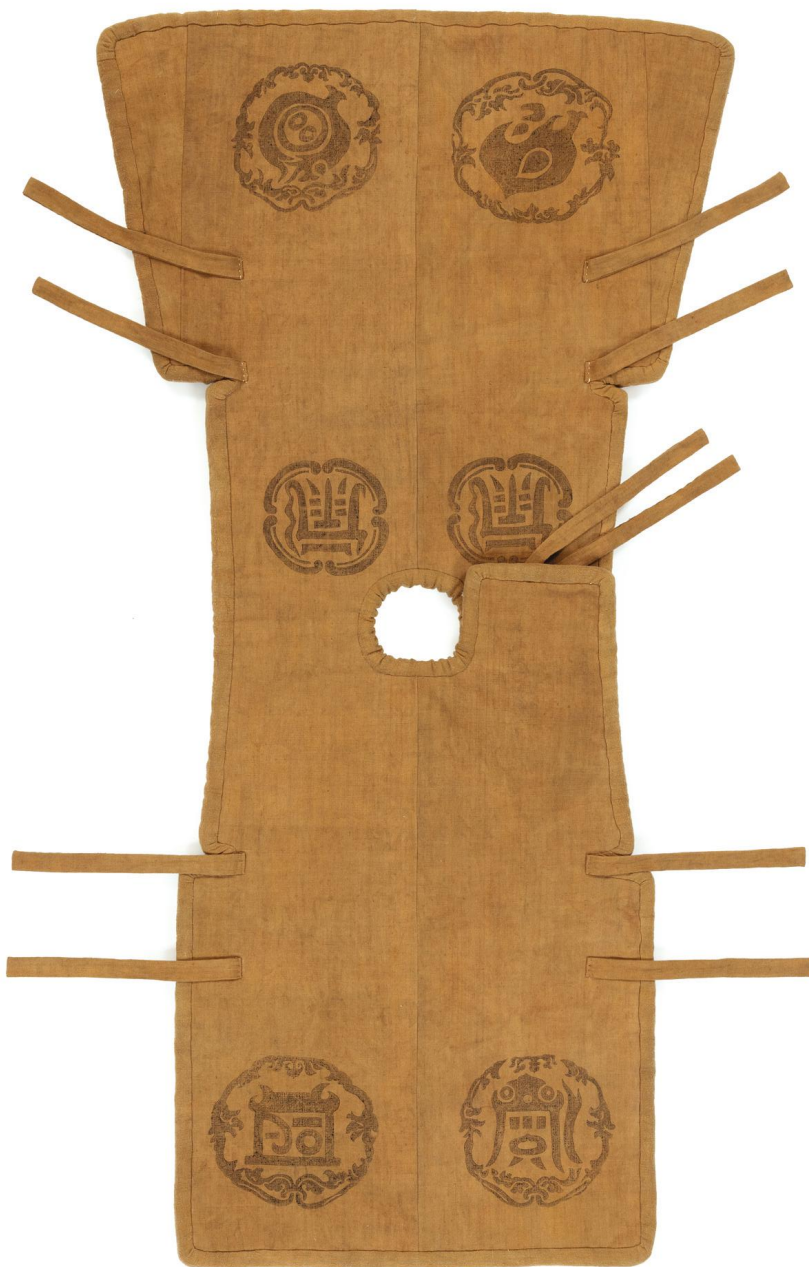
16

요대 腰帶

Waist Sash
19세기
면
길이 143cm 너비 20.5~28cm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소장
재현품 Replica
움마니반메홀 무늬와
구성팔문부 무늬가 찍혀있다.



43



면갑을 펼친 모습



17

면투구 綿冑

Helmet

19세기

면 금속

높이 24.5cm 지름 24cm 드림 길이 16~17cm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소장

재현품 Replica

원추형 갑투는 무명 4조각씩을 겹으로 이어 두텁게 솜을 두고 4개의 근철을 세워 형태를 갖추었다. 이마가리개는 근철로 당겨주고 차양을 달았다.

갑투에는 옴마니반메훈, 옆드림과 뒷드림에는 오악진형도 중 복악과 서악의 무늬를 인문하였다.

44



뒷길 안감의 등 부분에 금속 녹으로 추정되는 얼룩이 규칙적으로 남아있다. 갈색 얼룩의 배열은 갑옷의 두정 배열 양상과 흡사하다.



앞길 안쪽에는 '공군옥孔君玉'이라는 목서가 있다.

41



면제갑주의 앞면



면제갑주의 뒷면



1



2



3



4

18

갑주문판 甲冑紋板

Stamps for Cotton Armor and Helmet

19세기

나무

개인소장

재현품 Replica

1. 옆드림의 오악진형도

2. 뒷드림의 오악진형도

투구 옆드림과 뒷드림에 찍은

오악진형도 문양 중 북악과 서악의 무늬다.

3. 옴마니반메흠 Om Mani Padme Hum

투구와 요대에 찍힌 옴마니반메흠 무늬는 장식 테두리의 유무에 따라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옴마니반메흠은 '우주에 충만하여 있는' (Om), '지혜' (mani)와 '자비' (padme)의 덕성이 '지상의 모든 존재에 그대로 실현될지라' (Hum)는 문자적 의미가 있다.

4. 구성팔문부 九星八門符

요대의 등 쪽에 찍힌 무늬는 아홉 개의 부적 형상이 모여 다섯 개의 기둥을 만든 '구성팔문부'이다. 구성팔문부는 기문둔갑에서 사용되는 부적으로 명말기의 병서인 『무비지武備誌』에 실려 있다.



서



동



중



남



북

오악진형도 五嶽眞形圖

투구 뒷드림과 양쪽 옆드림, 그리고 갑의에 찍힌 다섯 종류의 원형 무늬는 모두 오악진형도 五嶽眞形圖라는 도교적 무늬이다. 동악 東嶽은 장수 長壽를, 남악 南嶽은 적이나 불로 인한 피해로부터의 보호를, 중악 中嶽은 피로로부터의 회복을, 서악 西嶽은 칼로 인한 자상으로부터의 보호를, 북악 北嶽은 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19

불랑기자모포 佛狼機子母砲

Cannon

조선

금속

모포 길이 79cm 자포 길이 21cm

육군박물관 소장

불랑기는 명나라시대에 중국을 거쳐서 조선에 전래된 서양식 화포이다.
일명 '자모포'라 하는데 어미가 자식을 품고 있는 형태의 포라고 명명하였다.
모포 하나에 5~6개의 자포가 한 셋트로 구성되어 연속 사격할 수 있다.



자포에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20

조총 鳥銃

Matchlock Rifle

조선

나무 금속

길이 128cm

육군박물관 소장

용두에 물린 화승으로 화약에
점화하여 탄환을 발사하는
순발식瞬發式 조총이다.

임진왜란 이듬해인 1593년에
조선도 독자적으로 조총을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21

고위장령환도

高位將領環刀

Sword

조선

가죽 나무 금속

길이 89cm

경인미술관 소장

신미양요辛未洋擾 시기에 미군에 의해
전리품으로 반출되었던 도검으로 조선군의
상위무관을 위해 제작된 군용환도다.

양질의 어피로 칼집을 싸고 옷칠을 곱게 올려
마감하였고, 모든 장식에 은입사된 철제 장식을
사용하였다. 당초문이 입사된 팔각형의
코등이를 사용했고 자루에는
흑칠을 올린 어피위에 갈색 면끈을 감았다.

22

하위장령환도

下位將領環刀

Sword

조선

가죽 나무 금속

길이 87cm

경인미술관 소장

조선군의 하위무관을 위해 제작된 군용환도다. 칼집은 어피로 감싸
두텁게 흑칠을 올렸고, 모든 장식에 은입사된 철제 장식을 사용하였다.
당초문이 입사된 팔각형의 코등이를 사용하였으며 칼집의 한 쪽 면에는
'신축개비강화고장辛丑改備江華庫藏'이라는 주칠朱漆의 명문이 있어
이 칼이 신축년(1901)에 수리되어 강화도의 군용무기고에 보관되었던 물건임을 알 수 있다.





용복 입은 조신
도서출판 열화당 자료제공

조선의 군사복식

융복 戎服 군복 軍服

섬세한 주름에 숨겨진 민첩함



쌍호호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무관^{武官} 복식은 갑옷과 투구, 융복^{戎服}, 군복^{軍服}이 있다. 융복은 왕과 문무백관이 공식적인 활동을 비롯하여 평상시에 착용하였으며 국난과 같은 비상시에는 겹옷을 벗어 군사 목적용 의복으로 사용하였다. 융복의 기본이 되는 철릭은 품계에 따라 색상을 달리하였으며 군사 활동에 적합한 형태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상의 허리에 주름이 잡힌 치마가 연결되어 민첩한 움직임이 용이하며 활쏘기를 편하게 하도록 소매를 탈부착형태로 만들어 기능성을 더한 형태도 확인된다.

군복^{軍服}은 갑옷의 밑받침 옷으로 무관의 예복, 평상복으로 착용하였다. 품계에 따라 옷감에 제한을 두었으며 문관의 경우도 군사목적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군복을 착용하였다. 군복의 차림은 머리에 전립^{戰笠}을 쓰고, 포^袍로 동다리^{同多里}를 입고, 동다리 위에 소매가 없는 전복^{戰服}을 입는다. 허리에 광대^{廣帶}를 차고 그 위에 전대^{戰帶}를 맨다. 신으로는 목화^{木靴}를 신는다. 또한 지휘봉 및 의장용^{儀仗用}으로 사용하는 등채^{藤策}, 병부주머니, 궁대, 시복, 환도^{環刀} 등을 지닌다.



23

철릭 帖裏

Man's Coat

16세기

명주

등길이 153.5cm 확장 121cm

철릭은 허리에 주름을 잡은 치마가 연결된 형태의 남성용 포로 활쏘기나 사냥을 위해 소매를 탈부착 할 수 있는 유형도 확인된다.

2011년과 2013년에 황의각·강영자(51회) 부부로부터 기증받은 황윤헌(黃允獻) 묘 출토 철릭이다.

겉감과 안감 직물은 명주를 사용하였으며 고름을 다는 옆구리 부분에는 운문단(雲紋緞)으로 바대를 대었다.

철릭의 색은 쪽빛으로 추정된다.

이번 보수에는 보강재로 청록색 노방을 해진 부분에 대고 울을 살려 세심하게 복원하였다.







24

답호 裕護

Man's Coat

16세기

명주

등길이 148.5cm 확장 64cm

조선시대 초·중기 남자들이 입었던 반소매 형태의 옷으로, 주로 철릭 위에 입는다.
관복의 경우 단령과 철릭 사이에 착용한다. 황윤현 묘 출토복인 답호 직물은
명주를 사용하였으며 홀로 제작되었다. 겨드랑이에는 바대를 엮선으로 길게 대었다.





25

군복 軍服

Military Uniform

19세기 후반 ~ 20세기 초반

쌍용문갑사 雙龍紋甲紗

동다리 길이 121.7cm 화장 76cm

전복 길이 123.5cm 품 45cm

조선후기 군복은 소매가 좁은 포인 동다리 위에 전복을 덧입고 광대와 전대를 두른다.
동다리와 전복 모두 쌍용문갑사를 사용하였으며 동다리의 겉감은 황색과 홍색이며
안감은 남색으로 제작되었다. 전복의 겉감은 검정색이며 안감은 홍색이다.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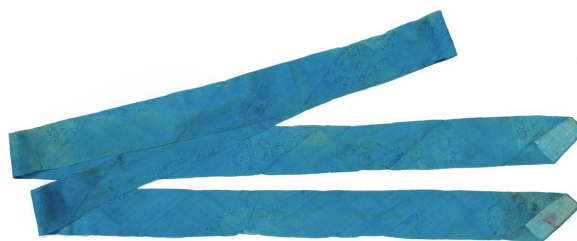
전복 戰服

Man's Sleeveless Coat
조선 후기
쌍용문갑사 雙龍紋甲紗
길이 117cm 폭 48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27

전대 戰帶

Military Sash
조선 후기
쌍용문갑사 雙龍紋甲紗
길이 402cm 너비 9.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28

광대 廣帶

Military Sash

조선 후기

장용 漳絨

길이 100.8cm 너비 13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군복 차림을 할 때 전복 위에 두른 띠이다.
광대 위에는 전대를 매어 앞으로 길게 늘어뜨린다.
겉감은 평직의 파일 조직 바닥과 컷파일의
무늬가 있는 장용 조직이다. 매난국죽 梅蘭菊竹 과
보문 寶文이 시문되어 있다.

29

광대 廣帶

Military Sash

조선 후기

장단 漳緞

길이 106cm 너비 11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겉감은 단 조직의 바닥에 컷파일의 무늬가 있는 장단 조직이다.
두 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감싸고 있는 원형의 쌍용무늬가 탐자형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 사이에는 보문이 시문되어 있다.



30

방령포 方領袍

Square Collar Coat

16세기 후반~17세기 초반

가족

등길이 143cm 확장 120cm

충장사 소장

재현품 Replica

충장공 忠壯公 남이흥 南以興 (1576~1627)의 녹피방령포를 재현한 것이다.

남이흥 장군은 1602년(선조 35)에 무과에 급제한 후 중군대장으로 있을 때 이괄의 난(1624)을 평정하였다.

1627년(인조 5) 정묘호란 중 평안도 안주성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하였다. 녹피방령포는 사슴가죽으로

만들어진 방탄용 내갑의 內鉋衣로 네모난 방령깃에 합임이며 앞여밈에 바대를 대었다.

중요민속문화재 제21호 「남이흥장군일가유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31

바지 袴

Pants

16세기 후반~17세기 초반

가족

길이 112.5cm

충장사 소장

재현품 Replica

임진왜란 이후 등장한 사복바지의 형태로
지금의 사복바지와 사복의 형태가 다르다.



32

사진보검 四辰寶劍

Sword

조선

가죽 나무 금속

길이 76cm

경인미술관 소장

직검 형태의 검신 한 면에는 금입사로 '사진보검 四辰寶劍 일편용광두우사 一片龍光斗牛射 (한줄기 용광이 두우성에 이른다)'의 명문 11자가, 반대편에는 북두칠성이 시문되어 있다. 칼집과 자루는 흑칠한 어피로 감싸여 있고, 모든 장식은 백동재질로 제작되었다. 칼자루의 머리 부분은 여의운두의 형태이다. 칼집의 패용장식에는 띠돈과 패용을 위한 녹피(鹿皮)가 결합되어 있다. 병부의 유소혈에는 수술과 함께 호패가 달려있다.

62

33

어피갑금동장신수문대환도

魚皮甲金銅裝神獸紋大環刀

Sword

조선

가죽 나무 금속

길이 96cm

경인미술관 소장

자루와 칼집 모두 나무재질 위에 백색의 대형 어피를 감싸 마감했으며, 금동으로 장식한 관제의 고급의 환도이다. 칼의 손잡이 끝과 칼집 끝 장식, 패용장식 전체에 신수문을 투각하였다. 습베에 '임오 丑五'자가 새겨져 있어 군기감에서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34

군용환도 軍用環刀

Sword

조선

가죽 나무 금속

길이 92.5cm

경인미술관 소장

전장에서 칼을 주무기로 사용하는 살수병殺手兵을 위해 제작된 병사용 군용환도로서 『용원필비 戎垣必備』에 수록된 군용환도 이전의 형태를 보여주는 칼이다. 목제 칼집 위에 저피猪皮를 감싸 흑칠을 올렸다. 손상되기 쉬운 칼집 입구에는 후대에 천을 덧대고 칠을 올려 보강한 흔적이 있으며, 잦은 사용으로 인해 도신에 새겨진 초서체의 ‘훈(訓-훈련도감)’ 자가 흐려져 있어 실전용 도검임을 알 수 있다.

63

35

흑칠장환도 黑漆裝環刀

Sword

조선

가죽 나무 금속

길이 84.5cm

경인미술관 소장

손잡이와 칼집은 목제 위에 갈대를 촘촘히 감은 후 어피를 덧씌우고 다시 그 위에 흑칠을 여러 겹 올려주었다. 황동제 코등이에는 투각된 쌍학雙鶴과 길상문이 장식되어 있고, 연결고리와 띠돈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다.



조선의 군사복식

친군영 親軍營 대한제국 大韓帝國

힘겹게 끌어올린 마지막 열망

1881년 4월에 군사제도의 근대화에 따라 신식 군대인 교련병대(별기군)가 창설되어 서양의 신식화기를 사용하며 한복에 서양식 요소가 절충된 신식 군복을 착용하였다. 1882년 6월에 발발한 임오군란(壬午軍亂)이 청(淸)에 의해 진압되고 조선은 수도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청국의 영향을 받아 친군영(親軍營) 체제를 시작하였다.

기존의 조선 군영, 청국식 친군영과 일본식의 교련병대를 흡수한 친군영은 군제가 통일되지 못하고 1884년 갑신정변(甲申政變)까지 이어졌다. 국왕 호위 및 궁궐, 한양 및 수도권 경비를 관장한 친군영은 1884년 이후 5영(좌, 우, 전, 후, 별영)이 성립되고 지방에도 확대되었으나 1894년 갑오개혁을 전후하여 해체된다.

1897년 10월 12일에 대한제국을 선포하기 직전에 변화된 군제에 따라 1899년까지 늑골형 군복의 형태가 도입되었다. 1900년 7월에는 일반적인 자켓 형태로 변경되었다. 1907년에 일본의 강압에 의해 고종이 폐위되고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었다.



36

전립 戰笠

Military Official's Hat

19세기 후반

양모 돈모 타조털 닭털 말총 명주 은조사

높이 11cm 지름 34.5cm

독일 로텐바움박물관 소장

재현품 Replica

전통적인 전립 제작방식을 따르면서 형태는 서양식 군모를 모방한 원통형에 깃 장식을 늘어뜨렸다. 아래쪽에 붉은 명주로 띠를 두르고 앞중심에 세로로 띠를 붙이고 목서를 썼다. 목서의 내용을 통해 '진군전영親軍前營 휘하 소속의 초장哨長'임을 알 수 있다.



교련병대(별기군)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제공

미국 국회도서관 소장



37

친군영 군복 親軍營軍服

Military Official's Uniform

19세기 후반

면 금속

등길이 82cm 확장 78cm

독일 로텐바움박물관 소장

재현품 Replica

조선 말기의 군인이 제복으로 입은 군복 상의이다. 검정색 저고리에 붉은색으로 깃과 색동을 달았다. 뒷길이 앞길보다 길고, 뒷길 중앙과 양 옆에 트임이 있다. 원삼 깃과 같은 맛깃에 합임으로 5개의 서양식 단추와 고리로 여몄다. 이 군복 상의 위에 서양식 가죽 허리띠를 착용하였으며 탄약함 彈藥盒이나 서양식 군도 등을 패용하였다. 1881년에 조직된 신식군대인 교련병대(별기군) 소속의 군인들과 1883~1890년대의 친군영이 착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육군부장 예복을 착용한 윤웅렬(1840~1911) 가족사진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제공, 미국 국회도서관 소장



견장에 3개의 오얏꽃을 수놓았다.



38

윤웅렬 육군부장상복 尹雄烈 陸軍副將常服

Field Officer's Uniform of Yun, Ung-nyeol

1897~1900년

모직

등길이 69cm 가슴둘레 95cm

연세대학교박물관 소장

1897년 5월 15일 「육군복장규칙」 및 「육군장졸복장제식」 규정에 따른 상복이다.

근골식(늑골복) 군복의 형태를 보인다. 겉감은 검은색 모직으로 제작하였으며 앞길에 가운데

골이 진 끈목으로 좌우 양쪽에 무궁화형으로 장식하고 앞중심에서 매듭단추와 고리로 여며지는 형식이다.

계급의 표시인 소매의 수장에는 '人(인)' 자형 끈목이 8줄이므로 부장의 계급에 해당한다.



39

윤웅렬 육군부장예복 尹雄烈 陸軍副將禮服

Lieutenant General's Ceremonial Uniform of Yun, Ung-nyeol

1900년 이후

모직

상의 등길이 44cm 가슴둘레 93cm 하의 길이 110cm

연세대학교박물관 소장

1900년 7월 2일 「육군장졸복장제식」 규정에 따른 육군부장 예복이다. 상의 전면에 도금된 오얏꽃 李花 무늬의 단추 14개가 두 줄로 달려 있는 더블 브레스티드형이다. 계급을 나타내는 소매와 깃의 장식인 수장과 의령장에는 붉은색을 덧대었고, 수장에 8줄의 인자형과 무궁화를 금색 끈목으로 장식하였다.



대례견장



40

고위무관의 장예도 高位武官儀仗禮刀

Sword

19세기

금속

길이 95cm

경인미술관 소장

구한말 조선황실에 서구식 복제가 도입되며 대례복에 패용하던 예도로써 유럽과 미국에서 제작하여 관료와 신식군대 지휘관들에게 지급하였다. 도검의 병부는 흑색의 우각牛角 손잡이에 도금한 금사를 엮어 장식한 줄과 금도금한 황동제 백플레이트를 결합한 형태이다. 병부 장식에는 조선 황실 무늬인 오얏꽃이 새겨져 있으며, 상부와 좌우에 태극 무늬가 시문되어 있고 도금된 금사로 술이 달려있다.



41

보병부위예복 歩兵副尉禮服

Infantry Lieutenant's Ceremonial Uniform

1900~1907년

모직

등길이 74.5cm 가슴둘레 91cm

육군박물관 소장

등록문화재 제543-6호

1900년 개정령에 따른 보병부위예복이다. 예복의 재질은 흑색 모직, 의령장과 수장에는 홍색 모직을 사용하였다. 대례견장은 금사광직이며 태극 무늬의 지수가 있다. 의령장은 위 2줄, 아래 1줄, 별 1개를 금속사로 장식했으며, 수장은 금선 양고직 2줄로 부위 계급에 해당한다. 견장 아래로 견사 재질의 식서가 부착되어 있다. 식대는 홍사 광직으로 양쪽에 금색 술이 달려 있다.



식대

42

보병부위예모 步兵副尉禮帽

Infantry Lieutenant's Ceremonial Cap

1900~1907년

모직

높이 12cm 지름 17.5cm

육군박물관 소장

등록문화재 제543-6호

예모는 타원형이며 상반부 재질은 흑색 모직, 하반부는 홍색 모직, 차양은 가죽으로 되어 있다. 예모의 상반부 타원과 세로선은 가운데에 골이 진 금색 끈목으로 1줄, 하반부 가로선은 2줄로 보병부위에 해당한다. 예모의 모표는 무궁화이고, 정수리 부분은 오얏꽃 무늬이다.



대령견장의 태극 무늬





43

정석용 기병부위상복 鄭錫溶 騎兵副尉常服

Military Police Lieutenant's Uniform of Jung, Seok-yong
1900~1907년

모직

등길이 74cm 가슴둘레 86cm

육군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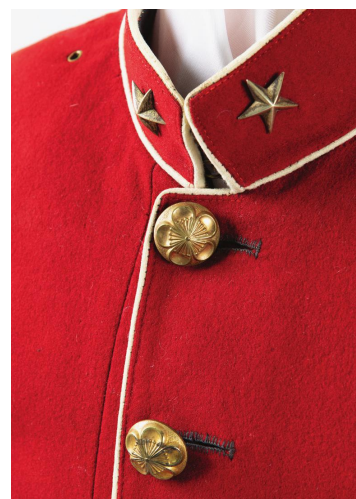
1900년 개정령에 따른 대한제국의 군인이었던 정석용(1878~1951)의 일상복이다.

예복의 재질은 홍색 모직이며 싱글 브레스티드 형태로 제작되었다.

앞에 7개의 오얏꽃 무늬 단추로 여몄으며 뒤에 6개의 단추가 달렸으나 1개는 분실되었다.

의령장 좌우에 별이 1개씩 있고, 수장은 2줄로 기병 부위 계급의 상복임을 알 수 있다.

다른 상복과 달리 가슴에 속붙임주머니가 2개 달려 있는 점이 특징이다.







44

영친왕 군복 英親王 軍服

Military Uniform of Imperial Crown Prince Young

20세기 초반

모직

상의 등길이 92cm 가슴둘레 100cm 하의 길이 104.5cm

육군박물관 소장

영친왕 이은李垕(1897~1970)의 일본 군복으로 정모·전입·정의·정고·식서·식대로 구성되어 있다. 수장은 귀갑선금선 1줄과 가운데 골이 진 사복조금선 5줄로 소장, 견장은 성장이 2개인 중장, 식대는 유금구留金具의 형태로 보아 성장星章이 없는 좌관의 것으로 파악된다. 정의의 금색 단추와 식서에는 일본을 상징하는 벚꽃이 새겨져 있다.



45

영친왕 군모 英親王 軍帽

Military Cap of Imperial Crown Prince Young

20세기 초반

모직

높이 13cm 지름 21cm

육군박물관 소장

영친왕 이은李垕이 착용한 일본 육군 예모이다.

정모의 모표에는 금색금속金色金屬으로 제작된 육일旭日이 새겨져 있다.

정수리 부분에는 일본 육군 복식 제도에 근거한 상징물이 보인다.



대한제국 예복을 착용한 영친왕(11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46

일본예도 日本禮刀

Sword

20세기 초반

금속

길이 90cm

육군박물관 소장

대한제국의 예도에 태극 무늬와
오얏꽃 무늬가 있는 대신 일본식 예도에는
일본을 상징하는 벚꽃이 새겨져 있다.

47

영친왕 군복 보관함 英親王 軍服保管函

Military Uniform Case of Imperial Crown Prince Young

20세기 초반

가죽

가로 48cm 세로 94cm 높이 27cm

육군박물관 소장

군모와 군복, 칼을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